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성동·광진지회'

# 격의없는 의사소통으로 경영 혁신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인 전국의 지회 지부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개의 구를 관할하는 성동·광진지회는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직을 탄탄하게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성동·광진 지회를 소개한다. 글 박소희 기자·사진 주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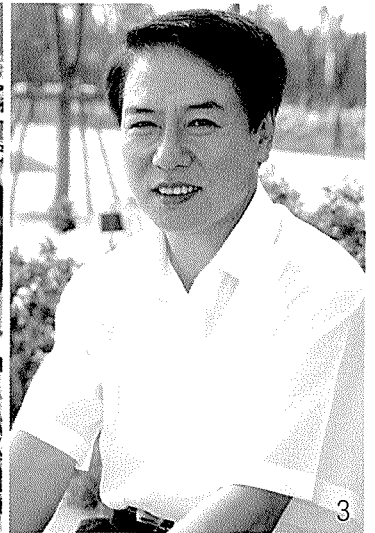
서울 도심 일대 35만 평 규모의 시민공원 서울숲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탄생한 웰빙공간이다.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서울숲을 중심으로 한강 주변 공원, 대학, 공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성동구와 광진구는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조건을 가진 곳이다.

1995년 3월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성동·광진 지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성동·광진 지회는 짧은 역사만큼 젊은 연령층의 임원들이 지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제3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안성국 지회장을 중심으로 고문, 부회장, 감사, 이사 등 17명의 임원들이 푹푹 뭉쳐 내실 다지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임원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회원을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최근 몇 년간 침

체된 경제상황으로 지회 살림이 어려워지고 회원수도 줄어들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려운 회원업소를 보면 어떡해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회원들과 마음을 나누며 고통분담을 해온 성동·광진지회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순숙 사무국장과 임원들이 회원 업소를 방문해 실질적으로 지회에서 도울 일을 상담하며 신뢰를 쌓는다.

“효율적인 지회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서로 간에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성국 지회장은 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새롭게 태어난 서울숲에서 힘찬 도약을 결의하는 성동·광진지회 임원들.  
 2 2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판.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경찰서, 복지관 등 관내 시설에 케이크와, 빵을 전달해 사랑의 봉사정신을 실천한다.  
 3 서울 성동·광진지회 안성국 지회장.

얼마 전 더욱 효율적으로 지회운영을 하기위해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 성동·광진지회는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가가치세 교육,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미나, 중앙회와 연계한 공동구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공동구매사업이 잠깐 주춤한 상태이지만 곧 활력을 찾을 것으로 낙관한다. 무엇보다 제과협회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회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생각이 라고.

### 2개 구가 하나로 합쳐 조화이룬 지회

성동·광진지회는 성동구, 광진구 2개의 구가 합쳐져 운영되는 지회이다. 2개의 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동·광진지회는 각 구별로 임원들이 활동 구역을 나눠 회원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서로 긴밀하게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요즘 이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윈도우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제품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이다. 110여 개에 이르는 성동·광진지회 회원업소 대부분 영세한 자영 제과점이어서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제품력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회 임원을 윈도우 베이커리 업주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주도 골고루 참여시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프랜

차이즈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문제 등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매출 하락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력을 향상시켜 고객을 사로잡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뭉친 과우회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과우회는 성동·광진 지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역대 이사들과 앞으로 도약의 책임을 지닌 현재 이사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회원으로 활동한다.

과우회 회원들은 '윗사람이 먼저 실천을 보여야 회원들도 따른다.' 라는 기본 원칙 아래 제과인 스스로가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후배 제과인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도우며 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청에서 주관하는 구민의 날에는 회원들이 협력해 행사에 빵, 케이크 등을 지원하고 특수절이나 명절에는 독거노인, 경찰서, 복지관 등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불모의 땅에 탄생한 웰빙공간 서울숲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성동·광진구의 힘찬 행진을 기대해 본다. ☺